

05 2027학년도 수시

교과와 학종, 같은 학과인데 왜 합격선이 다른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어느 쪽이 내 자리인가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같은 대학·같은 학과 1,845쌍을 짝지어 견주었습니다 — 학과가 다르면 비교가 안 되니까요
- ◆ 학종이 교과보다 0.47등급 낮고, 열에 아홉 가까이가 그렇습니다
- ◆ 계산하는 자와 읽는 자 — 수능최저가 만드는 차이까지 갈라서 설명
- ◆ 어느 쪽이 내 자리인가 (여섯 가지 경우) · 「학종은 보험」이 틀린 까닭

01 · 숫자부터

같은 학과에서 0.5등급쯤 걸립니다

「같은 학과인데 교과는 2.5, 학종은 3.1이래요. 그럼 학종이 쉬운 건가요?」

숫자는 맞습니다. 해석이 틀렸습니다. 학종 합격선이 낮은 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등급 말고 다른 것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학종에 원서를 버리게 됩니다.

학과가 다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같은 학과에 교과와 학종이 모두 있는 곳만 골라 짝지어 보았습니다. 1,845쌍입니다.

무엇을 보았나	결과
학종 합격선이 교과보다 낮은 곳	87%
교과가 더 낮은 곳	12%
낮은 폭 (중앙값)	0.47등급
0.5등급 넘게 걸리는 곳	51%

열에 아홉 가까이가 학종 쪽이 낮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0.5등급 넘게 벌어집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 「내신이 0.5등급 모자라도 학종이면 된다」. 그 0.5등급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메운 자리입니다. 무엇으로 메웠는지가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대학 제출) 2026학년도에서 같은 대학·같은 학과에 두 전형이 함께 있는 1,845쌍을 저희가 집계. 학생부 환산등급 70% 컷 기준입니다.

02 · 무엇이 다른가

계산하는 자와 읽는 자

두 전형은 같은 생활기록부를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무엇을	등급을 식에 넣습니다	서류를 사람이 읽습니다
반영 과목	요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 과목을 맥락으로 봅니다
세특	대개 안 봅니다	핵심입니다
과목 선택	반영 과목만 셉니다	무엇을 골랐는지를 봅니다
수능최저	69%가 겁니다	15%만 겁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갈립니다

교과는 등급 하나로 줄이 쉽니다. 2.5등급과 2.6등급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좁고 단단합니다.**

학종은 등급이 같아도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3.0등급 두 학생이 있어도, 하나는 붙고 하나는 떨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등급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넓게 퍼지고, 아래쪽 꼬리가 길니다. 「학종 합격선이 낮다」는 그 긴 꼬리를 본 것입니다.

수능최저가 또 하나의 까닭입니다

교과는 69%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최저를 못 넘긴 지원자가 빠지면 남는 사람의 등급이 대체로 높습니다. 학종은 15%만 걸어서 그 걸러짐이 없습니다. **합격선 차이의 일부는 여기서 나옵니다** — 학생의 수준 차이가 아니라 **거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및 어디가 전형결과.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03 · 어느 쪽이 내 자리인가

가른 뒤에 고르십시오

둘 중 어디에 쓸지는 성적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의 생김새가 정합니다.

이런 학생은	어느 쪽	왜
등급이 고르게 좋다	교과	식에 넣으면 그대로 점수가 됩니다
등급은 낮는데 세특이 두껍다	학종	읽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요 과목만 확실히 좋다	교과	반영 과목만 세는 곳을 고릅니다
과목 선택에 이야기가 있다	학종	교과는 그것을 못 봅니다
수능이 강하다	교과	최저로 경쟁자가 걸러집니다
수능이 약하다	학종	최저를 거는 곳이 적습니다

맨 아래 두 줄이 실전에서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수능이 강하면 교과에서 남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수능이 약하면 그 자리가 나에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흔한 어긋남 — 「학종은 보험」

합격선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학종을 한두 장 없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종은 준비 없이 넣으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읽을 것이 없으면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종은 보험이 아니라 별도의 문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읽힐 것이 있으면 주력으로 쓰시고, 없으면 그 장을 교과나 논술에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가르는 차례와 점검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여섯 장이 정리됩니다.

차례	무엇을	어떻게
1	생활기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학생이
2	이어지는 이야기 가 있는지 봅니다	3년에 걸친 것이 있는가
3	목표 대학 교과 전형의 반영 과목 을 봅니다	내 강한 과목이 들어 있는가
4	수능최저 를 맞출 수 있는지 셉니다	맞추면 교과가 유리해집니다
5	여섯 장을 두 갈래에 나눕니다	한쪽에 몰지 않습니다

3번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교과 전형은 반영 과목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전 과목을 보는 곳도 있고 국·수·영·탐만 보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성적으로도 반영 과목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내 약한 과목이 빠지는 곳을 고르면 공부를 더 하지 않고도 등급이 올라갑니다.

두 전형을 가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생활기록부를 **올해 안에 통째로** 읽어 보았는가
- ☐ 세특에 **내가 한 것** 이 적혀 있는가 — 수업 내용만 있지 않은가
- ☐ 3년에 걸쳐 **이어지는 줄기** 가 있는가
- ☐ 과목 선택에 **까닭이 보이는가**
- ☐ 목표 대학의 교과 **반영 과목** 을 확인했는가
- ☐ 반영 과목만으로 **내 등급을 다시 계산** 해 보았는가
- ☐ **수능최저** 를 맞출 수 있는지 세어 보았는가
- ☐ 여섯 장이 **한 갈래에 몰려** 있지 않은가

여섯 번째 항목이 가장 값이 큼니다. 반영 과목만으로 다시 계산하면 전체 등급과 크게 달라지는 학생이 많습니다. 계산은 요강과 성적표만 있으면 집에서 하십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3에 학종을 「만들어 드리는」 곳을 조심하십시오.** 학종이 읽는 것은 3년치 생활기록부이고, 그건 학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3에 새로 넣을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있는 것을 정확히 읽고, 맞는 자리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두 전형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내신이 애매하면 어느 쪽이 나은가요?

「애매하다」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고르게 애매한 경우 — 전 과목이 3등급 언저리라면 교과에서는 그대로 3등급입니다. 반영 과목을 골라도 크게 안 달라집니다. 이때는 **학종과 논술** 쪽에 무게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들쭉날쭉한 경우 — 어떤 과목은 1등급, 어떤 과목은 5등급이라면 **교과가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영 과목을 적게 보는 대학을 고르면 나쁜 과목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등급이 몇이나**」가 아니라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적표를 놓고 **반영 과목별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Q. 학종에서 봉사·동아리가 중요한가요?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대입 반영에서 빠지거나 줄어든 항목이 있습니다. 무엇이 반영되는지는 해마다 바뀌니 **그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무게가 실려 있는 곳은 **교과 세특**입니다. 수업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궁금해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어 갔는지. **학종의 중심은 수업 안**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학종 준비란 **바깥에서 활동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수업에서 남길 것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건 고1·고2에 이미 정해지고, **고3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작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합격선이 낮은 전형이 쉬운 전형이 아닙니다. **다른 자로 재는 전형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재 주는 자를 고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요강과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 집계는 두 전형을 함께 운영하며 값을 공개한 곳끼리만 견준 것입니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